

선진양계인의 공지로 단합해가는 분회

(지역계우회가 발전, 내실있는 협회로)

-대한양계협회 광주채란분회-

취재:김용화 기자

면단위 지역 계우회로 시작된 대한양계협회 광주채란분회(분회장: 최준구사장)는 양계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일찌기 절대농지보다 산(山)이 많은 지역이어서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

10여년 전부터 광주지역 축산업을 주도했던 양계인들이 현재는 전역으로 이주하여 채란양계산업을 이끌고 있음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광주채란분회는 총 가입회원 39명이 채란계 100만수라는 거대한 중부지역의 양계단지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양계협회 광주분회로 정식 등록을 한 것은 80년 10월 초대 분회장인 권성일씨 때이다. 이때만 하여도 육계와 채란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 운영이 되었다. 그후, 2대 정태희씨, 3대 정인혁씨, 4대 빈재훈씨, 5대 이민희씨를 거친 후 현재 채란분회장인 최준구씨가 주도하여 육계와 채란산업의 성격상의 차이를 이유로 분리, 각각 분회등록을 했다.

분회운영은 분회장:최준구, 부회장:이철재, 부회장:김상길, 총무:박동원, 경리:이인숙이 맡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협회가 성립되기 아주 전부터 지역별로 계우회가 결성

되어 양계인들이 결속을 해오던중 채란산업의 규모확대와 더불어 신속한 정보와 업자들간의 단합이 필요해져 각 계우회를 통합 협회결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분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준구사장(삼우농장)은 채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분회 초창기부터 참여하여왔고 분회 결성시 각 계우회조직이 강력하여 통합에 상당한 시간과 진통을 겪을 때에 최사장의 채란양계를 위한 헌신이 매우 컸다고 회원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협회 출자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매월 16일은 월례회로 참석회비 10,000원씩 부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와 현금 250여만원이 자본금 총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 계우회별로 상당한 회비가 마련되어 있어 오히려 협회가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협회조직이 내실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10월16일 이날도 월례회의가 있었다. 각지역 총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참석인원이 30명을 넘는 상황을 이루는 자진참여의식을 보여주었다. 시기가 계란가격이 하락세에 있을 때여서 그런지 다소는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보이기도 했으나 계란가격조절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최준구분회장의 설명을 들어가며 해결책을 논의하면서 진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광주채란분회의 열성은 홍보비 거출시 이미 나타났다. 일일이 임원 및 직원이 농장을 방문하면서 받아들인 100여만원은 이미 분회 홍보비로 제출을 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불우이웃돕기로 사용한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간 실시해온 사업중에는 이미 회원들이 누구나 수급하는 계란비축수매인데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과 긴밀한 협조하에 가격조절을 위한 자체사업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최사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계란가격폭락시 비축수매가 가격회복에 완전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계인 스스로가 생산조절을 통하여 가격유지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매란 일시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가격폭락이 장기화되는 때에는 해결방안이 안됩니다. 간혹 수매가 불경기를 장기화시킨다고 비난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수매된 생란이 방출될때 시란

(市卵)으로 나가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소의 영향은 있을지도 모르나 그 영향이 시장유통에 눈에 띄게 나타날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생산조절과 단합만이 최선책이라고 강조를 했다.

또한 광주지역은 한강상수도보호라는 명제하에 광주읍의 팽창과 더불어 공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의정부, 동두천, 이천 지역으로 이전을 한 사람도 있다.

이점에 대한 최준구 분회장의 의견을 들어 보면, 첫째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에 앞서 해결책을 당국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통제식 단속만으로는 양계산업이 지속되는 한 계분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주도로 연구소 설치를 하여 해결방안을 연구해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지금의 여건상 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기관을 이용 계분처리 문제의 방향제시가 우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지역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 정화조 설치를 시공업체가 하고 그 증빙이 있어야 준공검사가 된다는 점은 아무래도 계분의 특성상 불필요한 시설비 부담만 안겨주는 셈이고 계분처리의 해결방안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둘째는 소규모 농가의 권익보호 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 지부나 지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그 기능에 대한 방향제시가 재정비되어야 함

을 강조한다고 했다.

광주채란분회야말로 광주지역 축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던 채란양계인들이 이룩한 협회로 현재는 양돈분야에 비해 좀 위축이 된듯하지만 양계인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향한 참여의식으로 단합해 나가면서 머지 않아 선진 양계산업을 주도해나간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요즘은 광주군내는 물론 이천, 여주 지역에서도 회원가입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양계인에게 꼭 필요한 협회가 되어가고 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 계란공판장을 설치하자는 것을 주력사업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GP센터설치 필요시를 대비 이미 건물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육계가격 폭락으로 노계도태가 되지 않아 노계가 강제환우로 들어가 계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최준구사장의 얼굴에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일부 뜻있는 회원들이 「광주양계인 동우회」를 결성 될 출자금 50,000원씩 정기적금으로 납입하여 광주채란분회운영에 지원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총 15명정도가 이미 가입신청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는 양계인들이 많아질때 산업은 발전을 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사업으로 남게 될 것이다. 광주채란분회의 성립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양계인들이 자신을 위하고 나아가 양계산업을 위한다는 명제하에 강한 단합만이 필요함을 광주채란분회는 보여주고 있다. **양7대**

회원명단

직 위	성 명	농 장
회 장	최 준 구	삼우농장
부 회 장	이 설 재	철성농장
부 회 장	김 상 길	초월농장
총 무	박 동 원	선린농장
고 문	한 중 준	신천농장
고 문	이 오 형	삼정농장
고 문	남 동 희	영생농장
감 사	양 홍 식	.
감 사	최 동 철	.
운영위원	김 정 은	오백농장
"	이 강 만	서울농장
"	한 석 진	.

직 위	성 명	농 장
운영위원	김 학 문	.
"	이 상 수	.
"	이 해 돈	영생농장
"	남 상 기	.
"	지 덕 호	이천축산
회 원	김 경 구	지문농장
"	정 정 환	정원농장
"	이 용 구	두곡농장
"	손 석 창	.
"	지 자 인	.
"	김 상 섭	한샘농장
"	이 영 재	채경농장
"	최 사 석	예원농장

직 위	성 명	농 장
회 원	남 기 훈	남훈농장
"	최 병 영	광명농장
"	박 준 상	문형농장
"	정 진 복	중일농장
"	서 승 택	은혜농장
"	주 낙 인	.
"	이 현 운	선린농장
"	최 동 인	.
"	변 태 식	대생농장
"	장 정 순	.
"	안 경 근	경주농장
"	신 현 문	.
"	박 경 욱	.